

익산시, 백제문화의 가치 재조명

내달까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맞아... 공주·부여 등 8개 기관과 '백제문화유산주간' 운영

익산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익산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공주시, 부여군 등 8개 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념 행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적지구는 백제 후기(475~660년)의 문화를 대표하는 연속유산으로 △익산 2개소(왕궁리유적, 미륵사지) △공주 2개소(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4개소(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릉원, 나성)로 구성돼 있다.

시는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8개 기관과 6월부터 7월까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EBS PLUS2 '문화유산 코리아'를 통해 7월 27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0시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주제로 한 13부작이 방송된다. 7월 6일 오후 3시 45분에는 EBS 1TV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도 방영될 예정이다.

7월 2일에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 K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에



서 'K헤리티지: 백제를 브랜드하러'를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들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와 매력을 조명할 계획이다.

이어 7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제8회 백제문화유산주간'이 익산과 공주, 부여에서 펼쳐진다. 매년 세계유산 등재일인 7월 8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는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참여형·체험형 중심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유산방문캠페인의 7월 '이달의 방문코스'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정돼, 캠페인 참여자는 쏘카

차량·숙박 할인, 유적 무료입장,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누리집 www.baekje-heritage.or.kr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042-488-9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자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체감하고 일상에서 세계유산과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 범시민 재해예방 운동 앞장

장마철 앞두고 망성·용동·용안 일대에서 적치물 제거 캠페인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시민 재해예방 운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18일 망성면 화산지구와 용동·용안면 일원에서 민관 협력 '농경지 적치물 제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인 '재난안전관리'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책무에 발맞춰, 익산시가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한 것이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망성·용안·용동면 자생단체, NH농협 익산시지부, 자원봉사센터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침수 발생 요인 차단에 힘을 모았다.

아울러 캠페인이 진행된 망성, 용안, 용동을 방문해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해 사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군산시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등 수정 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디지털 상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먼저, 군산시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공직 업무 적응 교육, 직무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조(정의) 관련 조문 중 '자연차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한정시키는 등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준 금액을 1건당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면적 기준도 1건당 기존 취득의 경우 1천㎡, 처분의 경우 2천㎡에서 각각 10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한경봉 의원

건당 면적기준을 100㎡에서 330㎡로 바꾸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군산시 디지털 상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를 상세화하고,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 2차 피해 예방 관련 사항 등을 신설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 추진,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 설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는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선유도해수욕장 7월 9일 개장... 40일간 운영

어린이 워터슬라이드·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 마련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약 10리 에 걸쳐 펼쳐진 '명사십리' 선유도해수욕장이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신선이 놀던 섬' 선유도는 고군산 군도의 섬들이 방파제처럼 둘러싸여 있어 파도가 잔잔하고 어귀물이 풍부하기로 정평이 난 곳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해수욕과 낚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관광지로 알려져 왔다.

올해도 시는 비치파라솔 100조, 구명조끼 700벌을 마련했으며, 실내 샤워장 등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인 미끄럼틀과 수영장인 워터슬라이드도 설치하기로 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광장 그늘막 3곳, 음야분수도 마련된다.

최근 새로운 대안 치료로 인기인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만성질환,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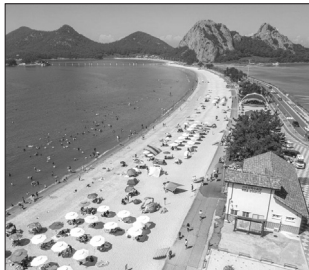
적 피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바다, 해풍, 모래, 해조류 등 해양자원으로 치유하는 활동이다.

시는 천혜의 지역 해양환경을 활용해 요가·모래찜질·해변 명상 등 자연 속 치유 활동을 제공해 단순 관광을 넘어선 '쉽고 회복' 중심의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특화형 해양복지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6일에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14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사전 현장 점검이 열린다. 이 점검에서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개장 동안에는 군산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 뿐 아니라 수상



안전요원도 배치해 피서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별도의 개장식은 생략되며, 대신 피서객 중심의 체험 콘텐츠 운영에 초점을 맞춘 실속형 개장으로 운영된다.

군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은 물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유도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름 명소가자, 일상 속 건강을 회복하는 해양치유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해춘 군산시의원 발의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은 공용차량 지원범위,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 지원내용 공개와 같은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3조(지원범위) 관련 조문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다만, 체육행사는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호를 삭제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